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2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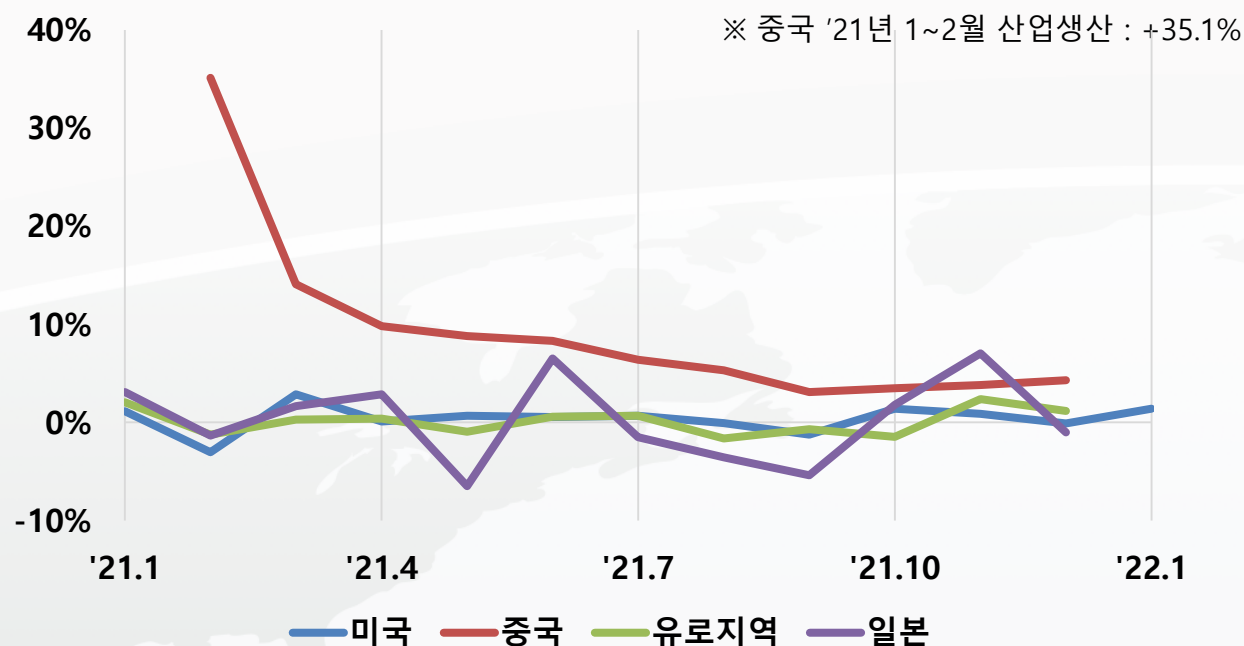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완만한 성장세 유지 불구, 오미크론 확산 및 고인플레이션으로 경기심리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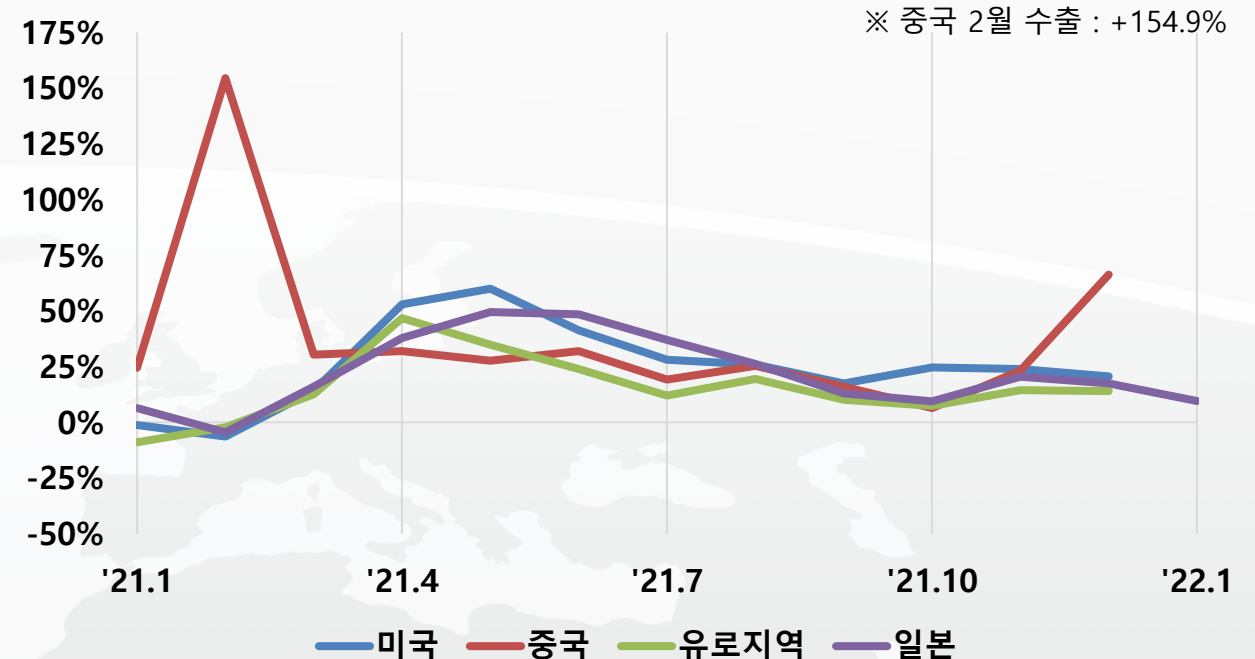
- (미국)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비 및 기업 심리지표는 악화되었으나, 산업생산, 소매판매 및 고용시장은 견조세 유지
 - 1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1.4%) 및 소매판매액(전월 대비 +3.8%) 증가세 반전, 1월 실업률은 4.0% 기록
 - 1월 소비자신뢰지수(115.2('21.12) → 113.8('22.1)) 4개월 만에 하락, ISM제조업지수 3개월 연속 하락
- (중국) 고강도 방역조치 시행, 부동산 산업 위축 등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
 - '21년 4분기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+4.0%로 전분기(+4.9%) 대비 하락, '22년 1월 PMI 지수(51.0)도 비제조업으로 중심으로 하락
- (유로존) 코로나 19 재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,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 중심으로 경기둔화 양상
 - 12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1.2%) 2개월 연속 증가, 소매 판매(전월 대비 △3.0%) 큰 폭 감소,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5.1%로 사상 최고치 경신
- (일본)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4분기 성장률 회복,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 회복세 주춤
 - '21년 4분기 성장률 전기대비 +1.3%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, 12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△1.0%), 소매판매(전월 대비 △1.2%) 전기대비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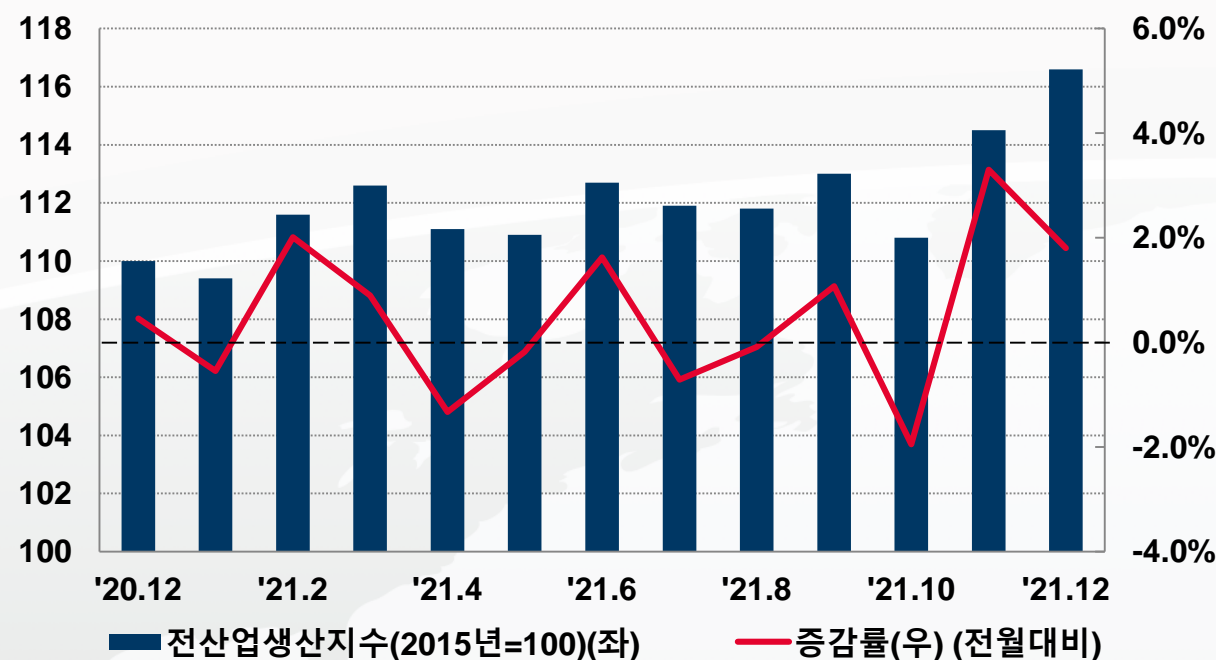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반도체·자동차 호조로 생산 증가, '21년 연간 GDP는 전년대비 4.0% 증가

- (생산) 12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은 줄었으나 광공업에서 늘어 전월대비 1.8% 증가
 - (광공업 : +4.3%) :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로 반도체(+8.0%), 자동차(+7.3%) 등이 증가
 - (서비스업 : △0.4%) : 도소매(+0.7%)는 늘었으나 사적모임 제한 강화로 숙박음식점(△11.8%), 협회·수리·개인(△2.9%) 등에서 감소
- (GDP) '21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1.1%, 전년동기대비 4.1% 증가,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4.0% 증가

■ 수출 동향 : 주요 품목·지역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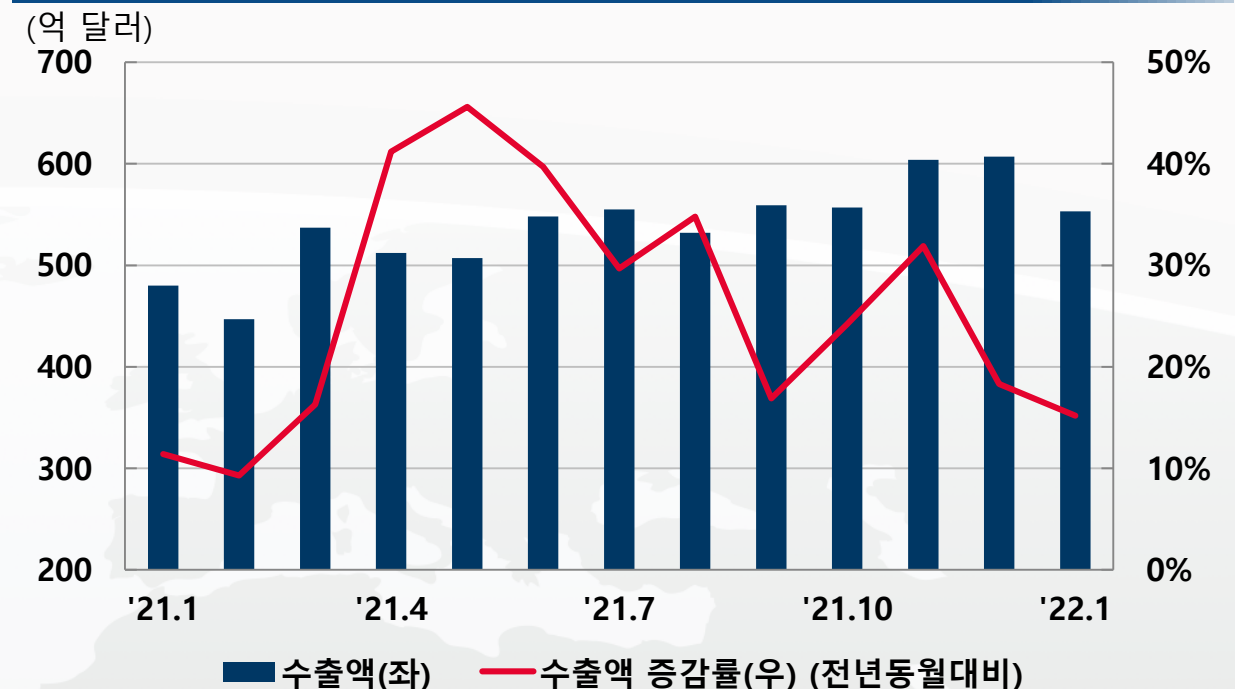
- 1월 총수출은 553.2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15.2%), 역대 1월 중 최고치 기록
 - 中(+13.1%) , 美(+1.6%), EU(+13.3%), 아세안(+28.9%) 등 9대 전지역 모두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
 - 반도체(+24.2%), 석유제품(+88.4%), 철강(+50.1%) 등 12개 품목은 두 자릿수대 증가, 선박(△77.9%)은 '19~'20년 수주부진으로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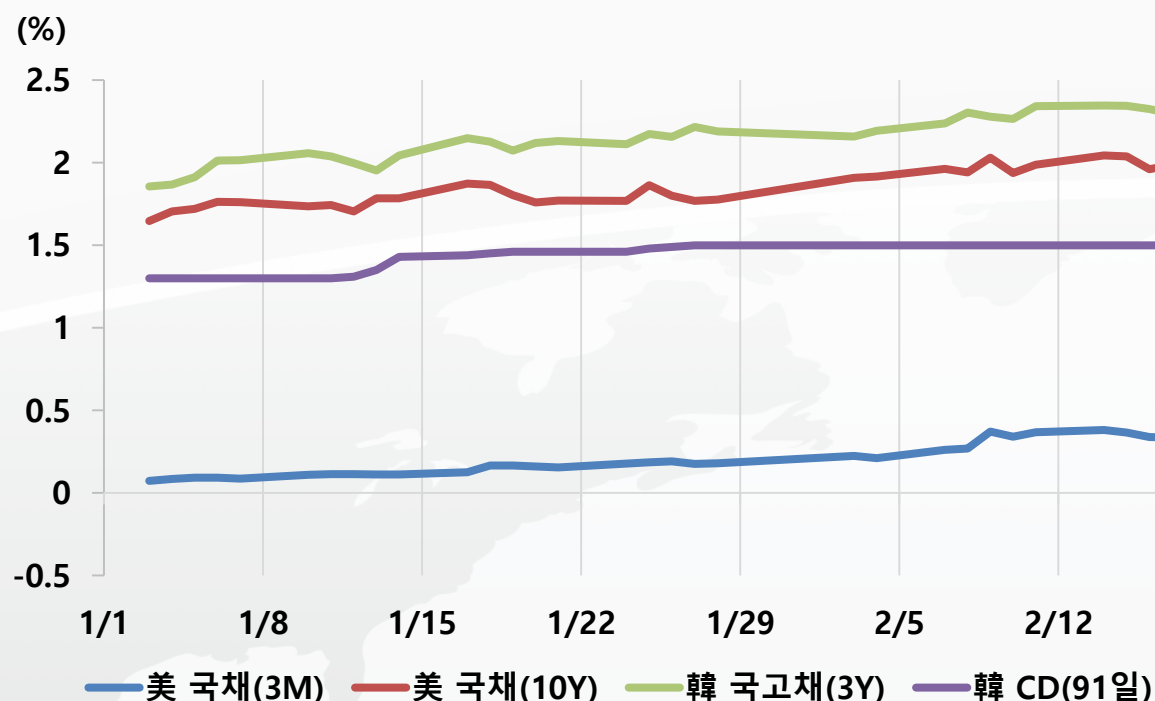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물가상승, 고용개선 지속에 따른 미연준의 금리인상폭 확대 가능성으로 국채수익률 상승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, 안정적 실업률 유지 등에 따른 미연준의 큰 폭(50bp)의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2%대로 돌파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, 추경 논의 등으로 1월말 이후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2.3%대 돌파

■ 환율 : 원/달러 환율은 1,200원/달러 돌파 후 소폭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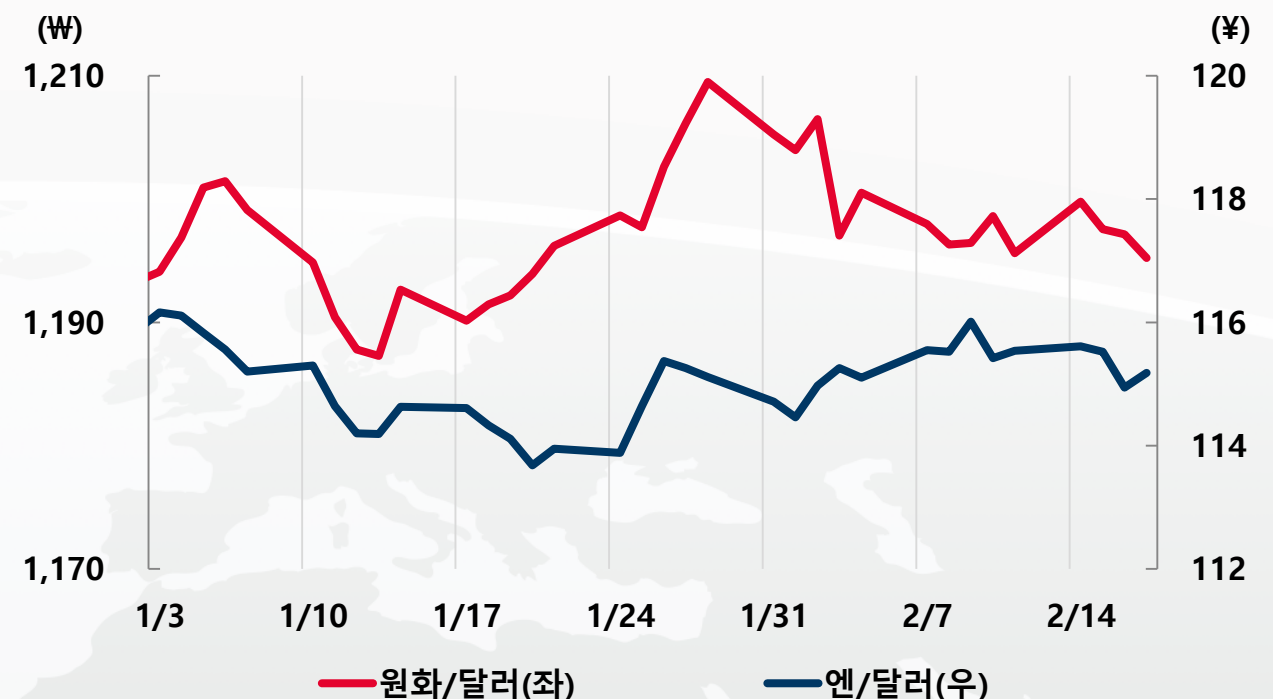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1월 중순 이후 미금리 상승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,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환율상승(원화가치하락)압력을 받고 있으나, 정부의 시장개입 경계감 등으로 1,200원/달러 수준에서 등락
- (엔/달러 환율)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,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113~115엔/달러 수준에서 등락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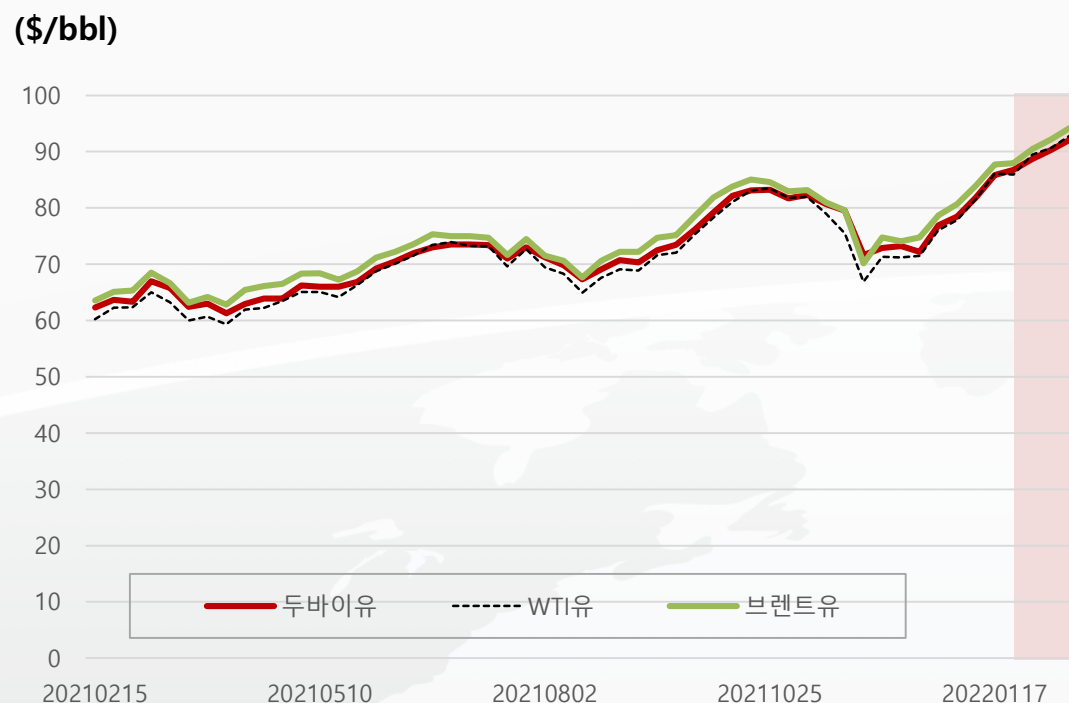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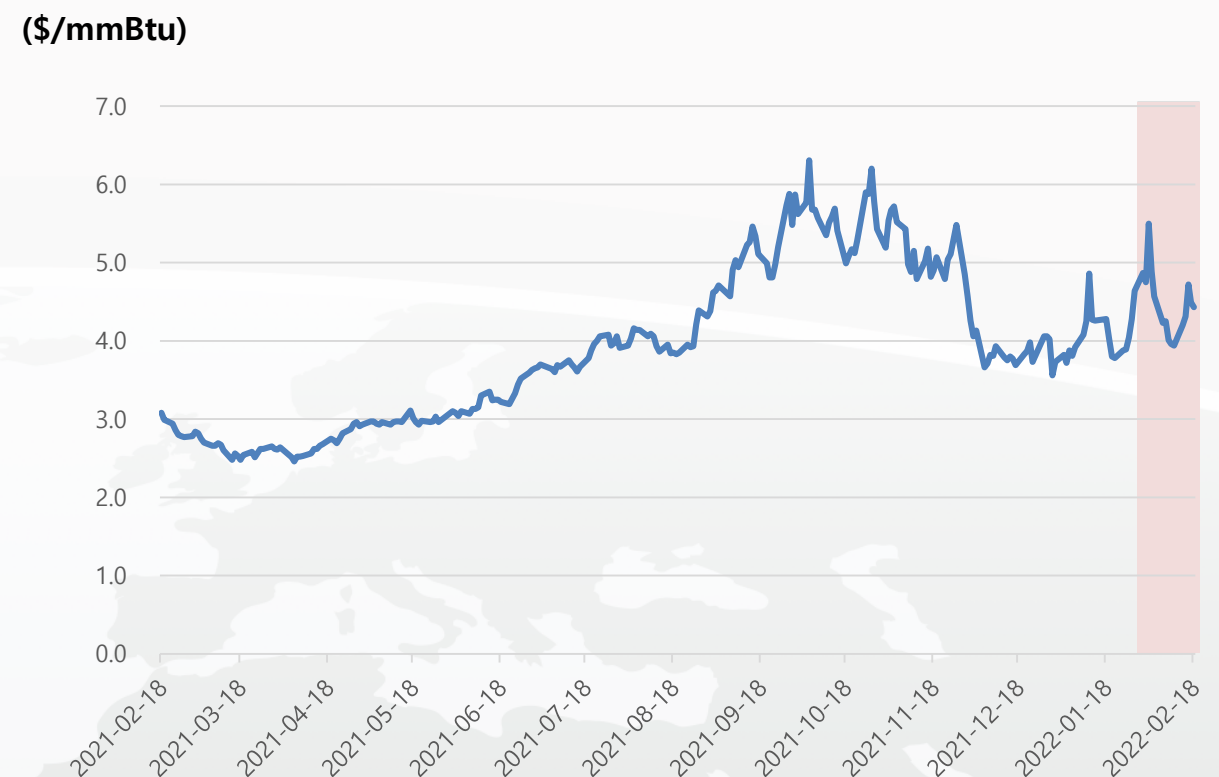
■ 원유 가격은 12월 말 이후 급등세 지속, 천연가스 가격은 1월 이후 급등락 반복

- (원유) 러시아-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, 1월초 배럴당 80달러대를 돌파한 이후 2월 들어 배럴당 90달러대를 돌파하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(2.15일, 두바이유 93.05\$/bbl) 기록
 - 다만 이란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타이트한 원유 수급상황의 개선 가능성으로 유가가 소폭 하락하여 2.18일 배럴당 90달러선 기록
- (천연가스) 미국 한파, 천연가스 재고 감소폭, 미 달러화 가치 변동 등과 러시아-우크라이나간 갈등 양상에 따라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혼조세 지속
 - 1월말 한파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2.1일 mmBtu당 4.874달러로 급등한 이후 미 달러화 강세 영향 등으로 하락하여 2.11일 4달러선 붕괴, 이후 러시아-우크라이나 긴장 지속과 미국 한파예보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2.16일 4.720달러 기록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■ 1월 수주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의 수요 강세로 양호한 수준 유지

• 1월 세계 발주량 및 한국 수주량은 양호한 수준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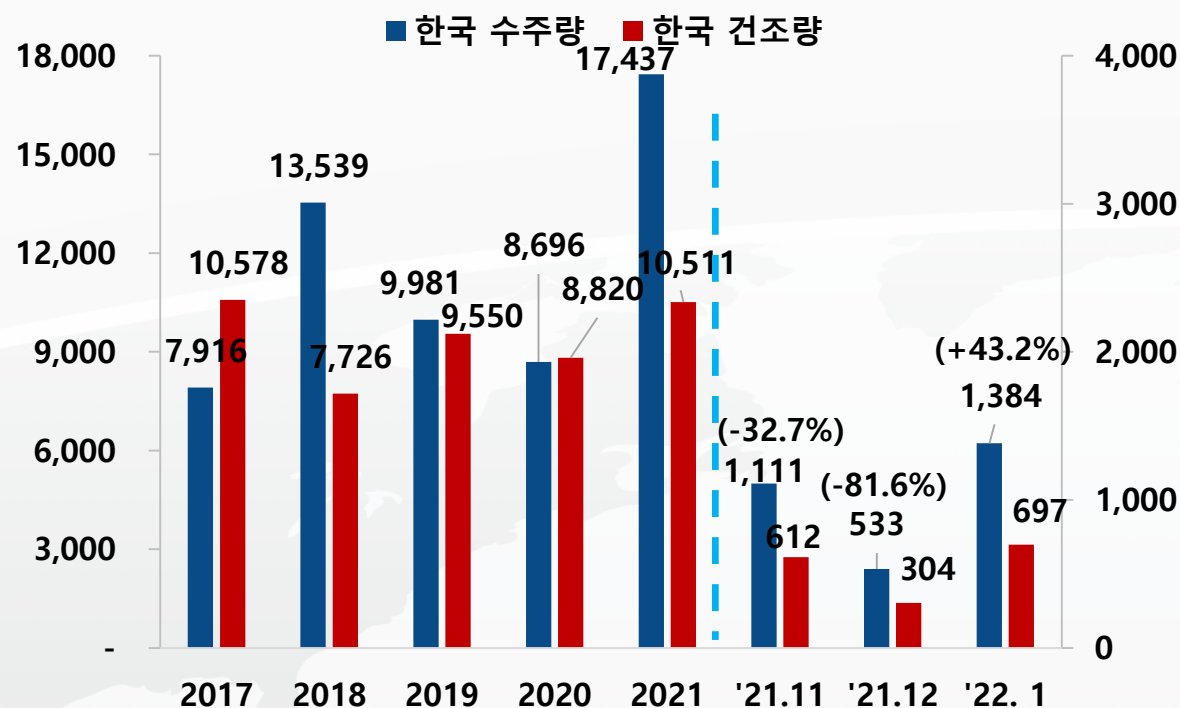
- 1월 세계발주량은 307만CGT(전년동월 대비 +12.2%)
- 1월 한국 수주량은 138만CGT(전년동월 대비 +43.2%)
- 1월 한국 수주액은 37.6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69.7%)
- 1월 한국 수주는 대형 LNG선 8척,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포함, LNG선과 컨테이너선 위주로 양호한 수주 실적 기록

• 1월 선박 수출은 극히 부진한 수준

- 1월 수출액은 7.7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77.9%)
- 2019년~2020년 수주 부진으로 인한 일감부족이 현실화되며 수출부진 지속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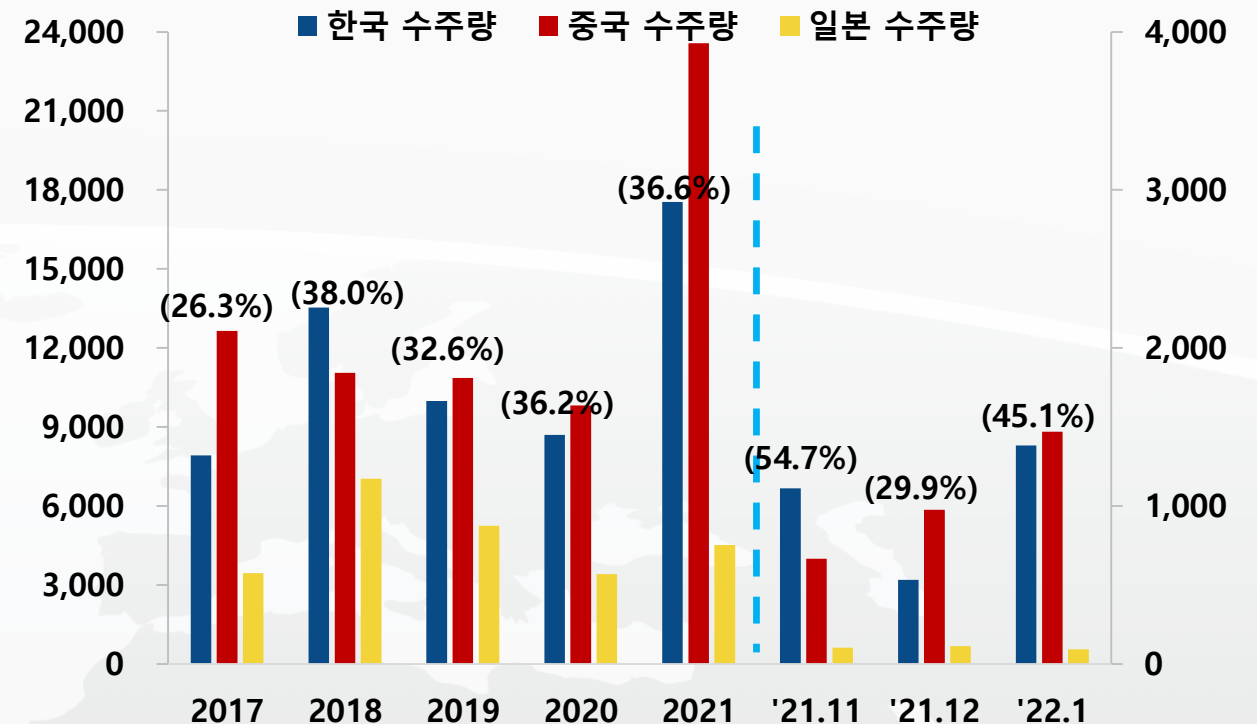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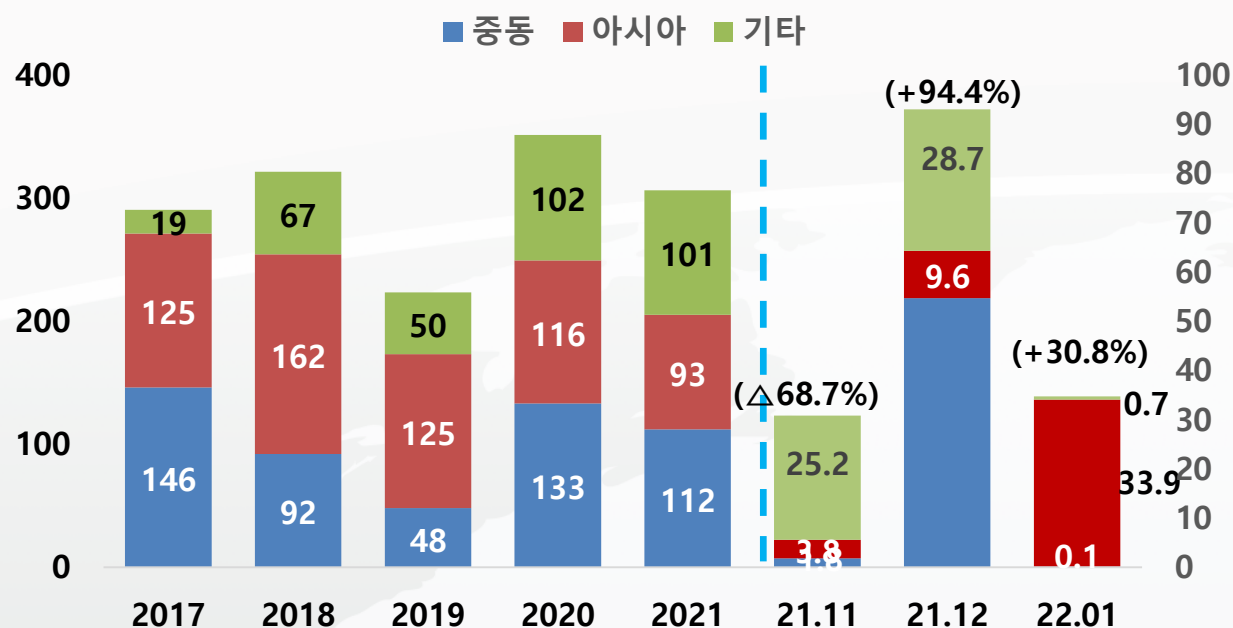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■ 1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아시아 수주 개선으로 전년동월 대비 30.8% 증가한 34.7억 달러

- (지역별) 1월 중동 수주액은 0.1억 달러, 아시아는 33.9억 달러로 1월 수주액의 98%를 아시아 수주가 차지
 - 아시아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1.8억 달러, 방글라데시 3.4억 달러, 베트남 3.1억 달러 수주
 - 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라인프로젝트에서 각각 14.1억 달러, 7.6억 달러 수주, 대우건설 베트남 하노이 복합개발 사업(2.5억 달러) 수주
- (공종별) 플랜트 23.0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38.6%), 토목 6.8억 달러(전년동월 수주액 0달러), 건축 3.8억 달러(+76.7%) 기록
- 202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유가 상승 및 아시아 인프라 수요 확대에 4.6% 증가한 320억 달러 전망
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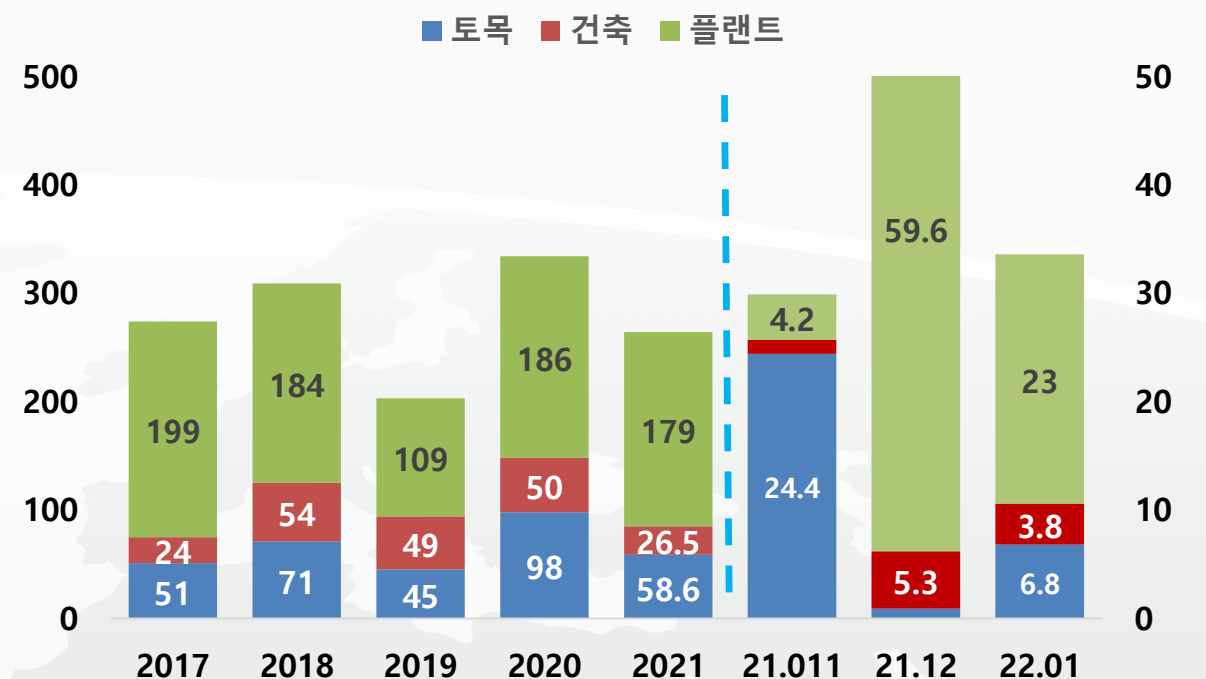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1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40.9억 달러, 20.6억 달러 기록

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2.3% 증가했으며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39.8% 증가

-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수출대수는 전년동기대비 6.4% 감소하였으나 친환경자동차 판매증가로 수출금액 증가
-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12.6억 달러로 역대 1월중 최고치 달성

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1년 01월) 22.6% → ('21년 11월) 29.9% → ('21년 12월) 31.1% → ('22년 01월) 30.8%

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'22년 1월 대수 기준) : 전기차(39.8%), 하이브리드(50.8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9.3%), 수소차(0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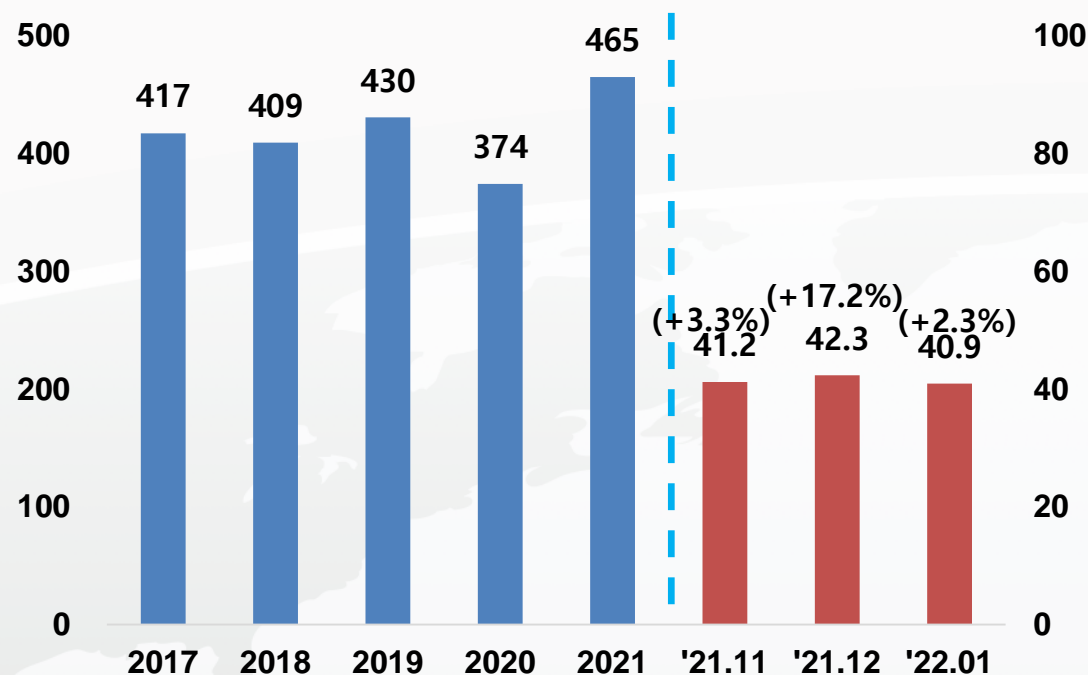
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4.2% 증가한 20.6억 달러 기록

-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자동차부품 수출액 증가

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 : 북미(33.4%), 유럽(26.7%), 아시아(24.8%), 중남미(11.6%), 중동(2.9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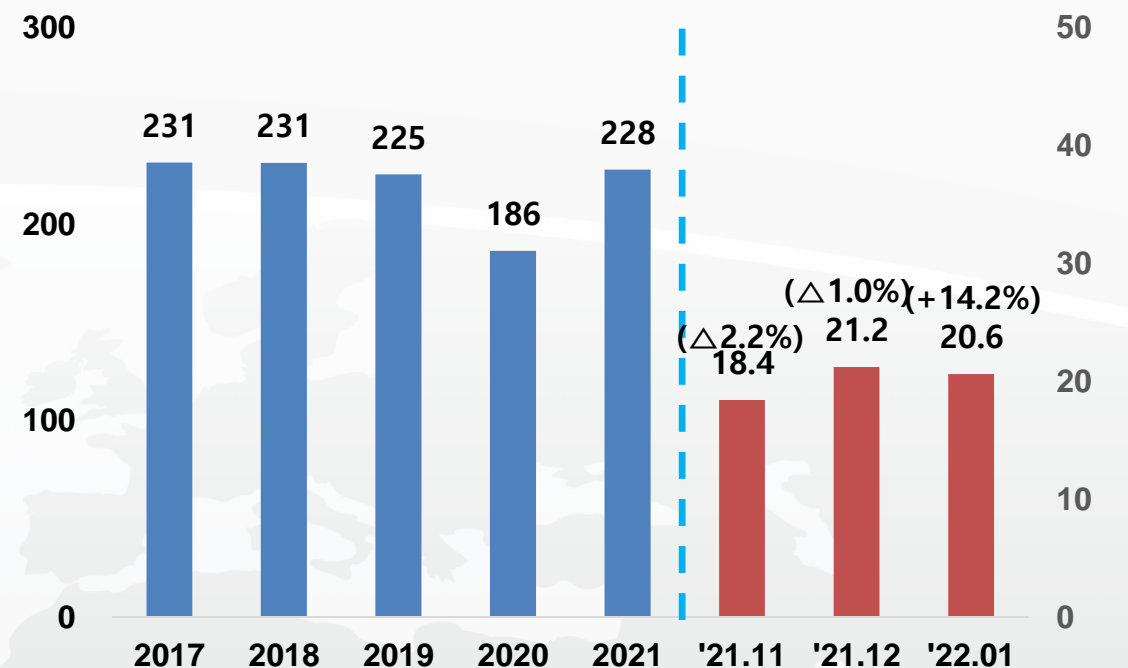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1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24.1%, 13.3% 증가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4.1% 증가한 108.9억 달러로 19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건조한 수요(서버·모바일), 전년대비 높은 D램 가격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1.9% 증가한 64.8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8Gb 기준, 달러) : ('21.1~2)3.0 → (4~6)3.8 → (7~9)4.1 → (10~12)3.7 → ('22.1)3.4 (D램익스체인지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3.0% 증가한 38.7억 달러 기록

* 국내 파운드리: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* 시스템반도체 수출가격지수(2015=100) : ('21.1)76.1 → (5)83.6 → (10~11)87.9 → (12)89.7 → ('22.1)89.0 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.3% 증가한 23.5억 달러로 17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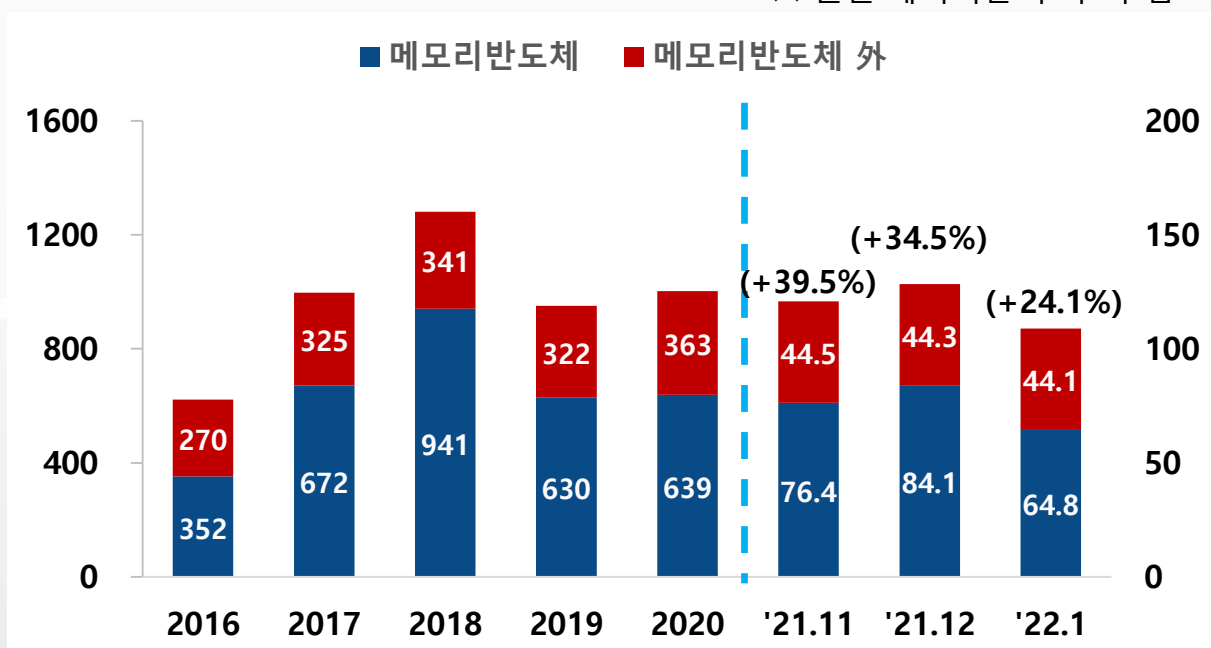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TV·모바일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4.4% 증가한 14.0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가격지수(2017.12=100) : ('21.1)61.7 → (5)51.2 → (10)50.8 → (11~12)50.2 → ('22.1)50.6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패널 가격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1.7% 증가한 5.4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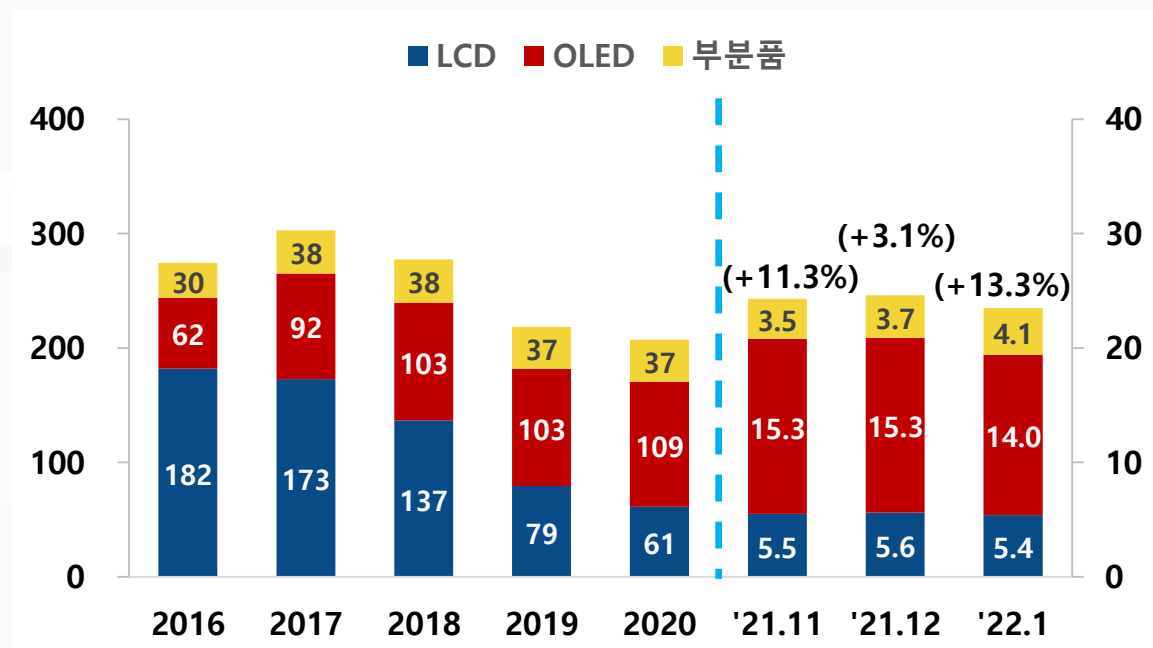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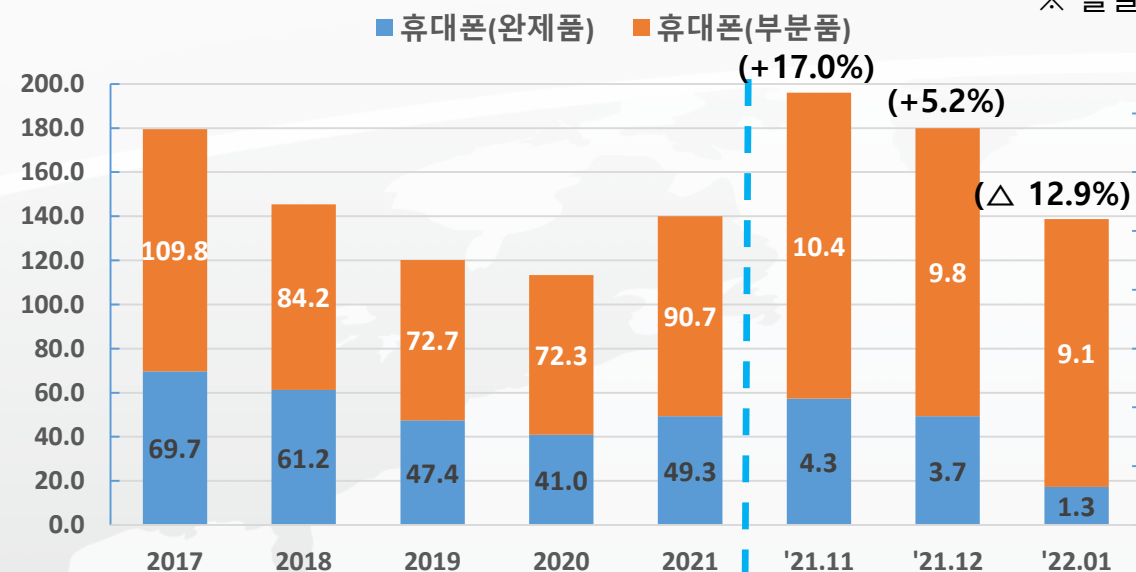
휴대폰·통신장비

1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2.9% 감소, 통신장비는 10.8% 증가

- **휴대폰 수출액은 완제품 수출이 크게 감소($\Delta 67.1\%$)하여 전년동월 대비 12.9% 감소한 10.4억 달러 기록**
 - (완제품) 1월 휴대폰(스마트폰*) 완제품 수출은 북미와 유럽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여 1.3억 달러($\Delta 67.1\%$)로 크게 감소**
 - *기존 "셀룰러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"(HSK-851712)에서 "스마트폰"(HSK-851713)항목 신설 및 분리
 - **주요 수출대상국인 북미와 유럽의 완제품 수출이 각각 전년 동월대비 $\Delta 74.0\%$, $\Delta 75.5\%$ 로 크게 감소, 아시아 및 중국 수출은 13.3% 감소
 - (부분품) 중국,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가 유지되며 전년 동월대비 12.6% 증가
 - *중국과 베트남은 주요 휴대폰 생산거점으로 '22년 1월 부분품 수출액은 각각 6.9억 달러(+59.5%), 1.1억 달러($\Delta 61.4\%$)를 기록(산업통상자원부)
- **통신장비 수출은 기지국용 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(+160.9%)하며 전년동월 대비 10.8% 증가한 0.81억 달러 기록**
 - (종합) 팬데믹으로 지연된 북미·유럽·아세안 지역의 5G 보급 및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며 통신장비 수요가 증가 중
 - *통신장비 수출 비중은 아시아(59.1%), 북미(17.3%), 유럽(14.4%) 순이며,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(기지국용 장비) 유럽, 북미, 인도의 통신장비 수요의 지속적 증가* 및 중국통신장비 배제 등으로 시장확보에 유리한 상황
 - *특히 '22년 1월 기지국 수출의 대부분은 인도(96.0%)이며, 인도의 5G 주파수 경매('22.3Q 예정)후 또 하나의 거대한 5G 통신장비시장이 열릴 예정

휴대폰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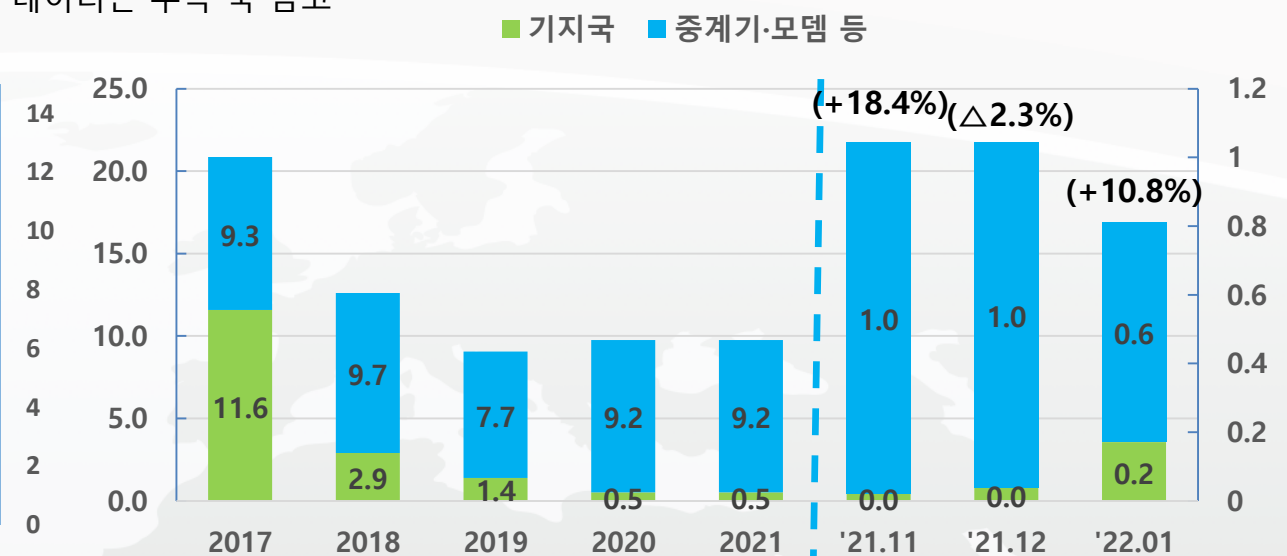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통신장비 수출액
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